

보도시점

2026. 9.30.(수) 06:00
< 9.30.(수) 석간 >

배포

2026. 9. 29.(화)

기업의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

- 배터리 냉각부품, 네트워크 보안 신기술 승인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제5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산업통상부 차관, 김주훈 민간위원장)를 개최하여 디케이(주), 피시오(주)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481억원을 투자하고 99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생활가전 제조기업인 디케이(주)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에 필수품인 냉각판을 개발해 배터리부품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네트워크 보안기업인 피시오(주)는 기존 기술에 AI 기반 영상정보 경량화 신기술을 개발해 보안시장에 통합솔루션을 만들어 공급하게 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 “경제환경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도 기업의 사업재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재편 컨설팅, R&D, 펀드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장(代)	문의진 (044-203-4231)
		담당자	사무관	박석용 (044-203-4232)